대한상공회의소가 회원님께 드리는 최신 경제정보

대한상의 브리프

제43호 2017년 12월 4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오덕교 선임연구위원

편집자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기업의 재무 정보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윤리경영, 건전한 지배구조 등 비재무 정보에 대한 요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기업 경영정보 공개에 대한 국내외 현황 및 대응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외부 필진 칼럼은 대한상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업의 정보 공개 요구 강화, 이렇게 대응하라

기업의 정보 공개 범위 확대와 사회책임투자

최근 기업의 각종 경영정보 공개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소비자와 주주 권리 보호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감안하면 기업 정보 공개라는 큰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 그러나 해당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밀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만 최소한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양면성도 지니고 있다.

과거 기업 정보 공개는 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 등 재무 정보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반면 최근에는 온실가스와 폐기물 배출과 같은 환경 문제, 사회 공헌, 노사관계, 안전, 보건 등으로 그 공개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이에 '착한 기업'에 투자하는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사회책임투자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건전하게 유지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지를 검토해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행위다. 세 항목의 영어 앞 글자를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딴 'ESG'로도 부른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강화 내용이 포함됐다. 올해 10월 31일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안에 사회책임투자위원회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이 위원회는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투자를 철회하거나 투자를 제한하도록 권고하는 역할을 맡았다.

정보 공개 확대와 기업가치

그렇다면 ESG 정보 공시가 왜 중요할까. 가장 큰 장점은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은 투자자와 고객들이 해당 기업이 공개하는 사회책임 활동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파악하고 ESG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

[기업의 정보 공개 항목]

항목	요소
환경	기후변화, 온실가스 배출, 자원고갈, 폐기물, 산림파괴 등
사회	노동 환경, 지역사회, 안전 보건, 임직원 다양성 등
지배구조	임원연봉, 뇌물, 부패, 정치적 로비 및 기부, 이사회 다양성 등

※ 자료 : UN PRI(유엔 책임투자 원칙)

이는 해당 기업의 평판을 향상시켜 더 많은 투자를 불러오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킨다.

ESG 정보 공개가 해당 기업의 매출 및 시가총액 증가에 긍정적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속속 발표되고 있다.

올해 미국 하버드대 경영 대학원은 “ESG 정보 공시를 의무화한 덴마크, 말레이시아, 중국 등의 상장 기업을 분석한 결과 ESG 정보를 공시한 이후 시가총액이 늘어난 기업이 많았다”고 밝혔다.

상당수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일부 또는 전체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ESG 정보 공시 의무화를 실시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덴마크, 인도, 유럽연합(EU) 등은 대기업의 ESG 정보 공시를 의무화했다. 노르웨이, 남아공, 브라질, 싱가포르 등에서는 상장 기업이 지속가능경영 관련 보고서를 반드시 발간해야 한다.

국내법 현황

한국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올해 3월 23일 사업보고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공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새롭게 추가된 공시 항목은 뇌물 및 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 친환경 경영, 일·가정 양립 지원, 근로 조건 및 노사 관계, 윤리 경영, 지역사회 참여 및 개발, 소비자 안전 및 정보 보호 등이다.

또한 지난달 24일 '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을 수립하게 되며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도 설립할 예정이다.

[해외 ESG 공시/보고 의무화 현황]

국가명	도입년도	대상
노르웨이	1998	상장 기업
오스트레일리아	2003	상장 기업
그리스	2006	상장 기업
영국	2006	상장 기업
말레이시아	2007	상장 기업
이태리	2007	상장 기업
아르헨티나	2008	대규모 기업 (종업원 300명 이상)
남아프리카 공화국	2009	상장 기업
덴마크	2009	대규모 기업 (종업원 250명 이상, 매출액 38백만 유로 이상 등)
인도네시아	2010	상장 기업
독일	2011	상장 기업
프랑스	2012	상장 기업
브라질	2012	상장 기업
유럽연합	2014	대규모 기업 (종업원 500명 이상)
인도	2015	대규모 기업 (시가총액 상위 500위 기업)
대만	2015	대규모 기업 (납입자본금 100억 대만 달러 이상 등)
싱가포르	2016	상장 기업

[국내 ESG 공시 관련 법제화 현황]

발의 법안	내용	진행경과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사업보고서에 ESG 정보 공시 의무화	'17.3.23 정무위원회 통과
산업발전법	5년 단위로 지속가능경영 종합 시책 마련	'17.11.24 본회의 통과

ESG 정보 공개와 사회책임투자 활성화

제도 강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이다. 미국은 지속가능성 관련 보고서 발간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S&P500 소속 500개 대기업 중 기후 변화 및 기후 위험 관련 보고서를 내놓은 기업이 무려 96%에 달하는 480개다.

즉 이미 대다수 기업이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기에 굳이 의무화를 논의할 필요가 없다.

반면 한국은 지난해와 올해 지속가능성 관련 보고서를 발간한 상장기업이 코스피200 소속 기업 중 36%에 불과한 71개에 그쳤다.

점점 많은 투자자들이 투명한 ESG 정보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경영 참여를 의미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사회책임투자 규모가 대폭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 이를 감안할 때 국내 기업도 ESG 정보 공시가 기업 경영에 불가피한 사항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즉 단순히 법으로 규제하기 때문에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가치를 높이고 더 많은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진정성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뜻이다.

국내·외 경제지표

2017년 12월 4일 기준

1. 국내·외 경제성장률

(단위: %)

	2015	2016(E	IMF		OECD	
			2017(P	2018(P	2017(P	2018(P
한국	2.8	2.8	3.2	3.0	2.6	2.8
세계	3.4	3.2	3.6	3.7	3.5	3.6
미국	2.9	1.5	2.2	2.3	2.1	2.4
중국	6.9	6.7	6.8	6.5	6.6	6.4
일본	1.1	1.0	1.5	0.7	1.4	1.0
EU	2.0	1.8	2.1	1.9	1.8	1.8

* E : 잠정치(Estimate) / P : 예상치(Projections)

2. 환율·유가[1)]

(단위: 원(환율), 달러(유가))

	2015	2016	'17.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원/달러	1,131	1,161	1,130	1,134	1,131	1,132	1,132	1,105
원/엔	934	1,068	1,019	1,009	1,030	1,022	1,002	979
원/위안	180.1	174.4	166.1	167.5	169.2	172.3	171.1	166.8
원/유로	1,255	1,283	1,269	1,306	1,337	1,348	1,331	1,296
유가(Dubai)	32.2	53.8	46.5	50.4	49.3	55.2	58.3	60.82

3. 산업지표

(단위: %(전년동기대비))

	2015	2016	'17.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산업생산	1.9	3.0	1.7	2.0	2.5	7.4	-2.2	-
소매판매	4.1	4.3	1.1	3.6	0.9	8.4	-0.2	-
설비투자	6.9	-1.3	18.6	24.9	12.4	24.9	-3.4	-
수출	-8.0	-5.9	13.4	19.5	17.3	35.0	7.1	9.6
수입	-16.9	-6.9	19.8	15.5	15.3	21.7	7.9	12.3

1) 환율은 월 평균 기준, 유가는 기말 기준